

제14권 9호

2024. 4. 29~2024. 5. 12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복합 안보의 시대, 산업의 위기와 기회 |
| 이슈분석 | 중국 경제에 대한 엇갈린 시각 |
| 금융경영브리프 | 글로벌 금융사의 AI 도입 성과 본격화
디지털 월렛 시대, 은행의 차별성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내수 중심 GDP서프라이즈로 상방 압력 확대
외 환 : 리스크 오프 모드로 불안한 원화
부 동 산 : 매수세 회복에 가격 부담이 걸림돌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원 송형은(hesong)

논단

연구위원 김남훈(zec89)

이슈분석

연구위원 강미정(ashleykang)

금융경영브리프

수석연구원 신석영(seokyoung.shin)
수석연구원 장혜원(hwjang)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김용태(ket1006)
외 환 | 연구위원 오현희(hyunheeoh)
부동산 | 수석연구원 하서진(seojinha)

금융지표

연구원 방승연(sybang)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D@hanafn.com)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복합 안보의 시대, 산업의 위기와 기회
- 04 **이슈분석** 중국 경제에 대한 엇갈린 시각
- 08 **금융경영브리프** 글로벌 금융사의 AI 도입 성과 본격화
 디지털 월렛 시대, 은행의 차별성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내수 중심 GDP서프라이즈로 상방 압력 확대
 외 환 : 리스크 오프 모드로 불안한 원화
 부 동 산 : 매수세 회복에 가격 부담이 걸림돌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복합 안보의 시대, 산업의 위기와 기회*

김 남 훈 연구위원

러·우사태 및 중동 갈등,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등에 따른 분업화 구조의 재편, 에너지 공급 불안 등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기술, 자원, 에너지, 국방 등 복합적인 안보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첨단 기술을 둘러싼 공급망 재구축 과정에서 기업들의 생존경쟁과 각국의 기술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는 한편 에너지 및 국방 안보 불안의 반대 급부로 원전 및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기회의 창도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분업 구조의 재편과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각자도생의 시대에 정부·금융·기업 등 3각 협력을 통한 주력 산업의 초격차 및 수출 경쟁력 확보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 확보에 절실한 시점이다.

:: 지정학적 갈등 속에 복합 안보의 시대가 도래

전 세계적으로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분업화 구조의 재편,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러·우 전쟁 및 중동 분쟁 등 군사적 충돌, 에너지 공급 불안 등으로 인해 안보 이슈가 복합적으로 부각되며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AI혁신 가속화로 반도체 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및 관련 소재 등을 둘러싼 자국 산업의 육성과 핵심 광물을 활용한 자원 무기화 등으로 인해 한국,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의 기술 및 자원 안보 위기감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무엇보다 '24년 주요국 선거로 자국 우선주의가 부상하며 신흥 자원 부국 중심으로 광물 자원의 무기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향후 美 대선 결과에 따라 反 친환경 정책 도입 및 IRA(인플레이션제한법) 무력화 등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높다.

지정학적 변화 속에 복합 안보의 시대가 도래

한편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등 미국의 중동 내 영향력 축소에 따른 지역 내 분쟁 심화와 남중국해 지역의 마일·필리핀 군사협력 강화 등 군사적 긴장감과 안보 위협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첨단 무기를 포함한 방산물자에 대한 수요와 각국의 국방비 증액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러·우 전쟁으로 EU의 에너지원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등 기후 정책에 대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지정학적 갈등은 각국의

다양한 안보 요소가 부각되며 산업별로 위협과 기회로 작용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산업 및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술, 자원, 에너지, 국방 안보 위협이 동시에 증가한 新 복합 안보의 시대로 접어들며 산업별로 위협과 기회가 명멸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 모두 다각도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기술·자원 안보 경쟁 격화되며 첨단 산업의 위기감 고조

첨단기술에 대한 기술패권 경쟁과 기업들의 생존경쟁 고조

미중 갈등에 따른 기술안보 경쟁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과 소재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각국의 자국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견제와 함께 동북아 중심의 반도체 생산 구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의 전주기 공급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은 과거 미국과의 제1·2차 반도체 협정으로 우리나라에 추격의 빌미를 제공했던 만큼 미국과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협력 등을 공고히 하며 다시 부활을 꿈꾸고 있다. 또한 양안관계의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은 TSMC외에도 다수의 대만 팹리스 및 반도체 업체들이 동지를 틀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만과의 新반도체 밀월관계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은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반도체 장비 수입을 대폭 늘리며 범용 반도체 분야의 장악력을 높이고 있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대외 확장력을 더욱 옥죄고 있다.

이와 함께 리튬, 희토류 등 배터리 관련 핵심 광물자원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배터리는 전기차,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 전동화 기기의 주요 동력원이다. 그러나 소재용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美 IRA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들의 원료 수입선 확대 및 자급화 등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하여 전기차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저가형 자국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점유율 하락 방어와 소재 공급선 다변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 글로벌 에너지·국방 안보 인식의 고조는 수출기회로 작용

반면 지정학적 갈등의 고조로 인해 에너지 및 물리적 안보 위협이 높아지며 수출에 대한 기회의 창도 열리고 있다. 국내 방산물자는 높은 가성비와 충분한 생산 역량, 글로벌 표준 충족 등의 강점을 갖고 있어 동유럽 및 중동,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수출에 이미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특히

러우 전쟁으로 인한 스웨덴, 폴란드 등 NATO 가입국 증가 및 각국의 노후화된 무기체계에 대한 교체 수요가 국내 방산물자 수출에 호재가 되고 있다. '23년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국도 전년보다 3배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 되는데, 향후 동유럽 및 중동 지역 내 협력이 확대될수록 방산업체들의 수출 신장이 기대된다.

국방에너지 안보 불안으로 방위산업, 원전 등 수출 기회의 창도 열려

한편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탈탄소 전환을 가속하던 EU는 러우 전쟁 여파로 인해 에너지 안보 이슈가 부각되며 탈탄소 전환 반대 및 속도 조절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EU집행위원회도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 원전을 포함한 형태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모색 중이다. 더하여 중리의 원전시장 및 핵원료 공급망 장악에 대해 미국의 초당적인 대응이 겹쳐지며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수출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기업·금융의 3각 협력 중요

IMF의 최신 보고서 '산업정책으로의 회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산업정책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 개도국 중심으로 도입되던 산업정책들이 최근에는 EU,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중심으로 급증하는 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장주의와 자유무역을 표방하던 워싱턴 컨센서스는 퇴색되고 안보를 명목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미국과 선진국들의 동참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 이슈로 촉발된 산업의 위기 및 기회에 대한 협력 중요

이처럼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우리도 종합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감안할 경우 핵심 기술과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외 협력 지원뿐만 아니라 과감한 재정 집행을 통한 첨단 설비 및 R&D 투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방산 등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교역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을 포함한 다각도의 수출금융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융권 또한 정책금융과의 연계 및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펀드 참여 등 주력 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 및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소부장 우수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업·금융권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고물가 고환율까지 겹친 복합 안보 시대에 산업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국 경제에 대한 엇갈린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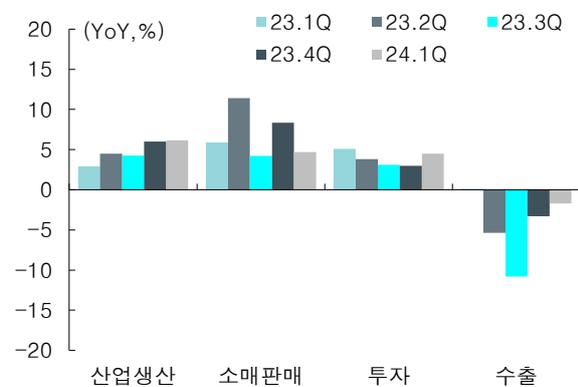
강미정 연구위원

올해 들어 중국의 실물지표가 개선되고 1/4분기 성장률도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저물가 현상 등이 지속되고, 최근에는 정책 신뢰도 저하에 따른 脫중국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등 불확실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구조개혁 기조도 유지함에 따라 질적 성장 전략 전환 과정에서의 잡음이 이어질 수 있으며, 제한적인 부양책으로 성장세 둔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中 정부의 부양책 등에 힘입은 실물지표 개선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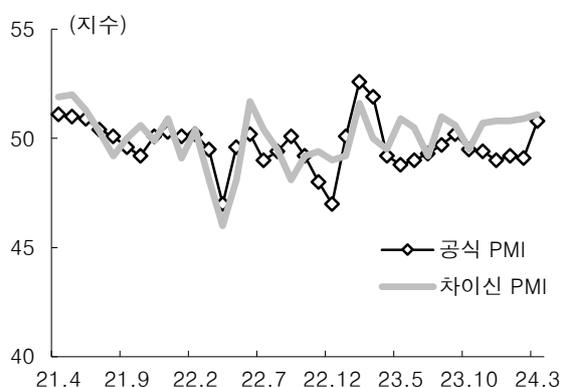
- 중국은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 속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대외 수요 증가로 생산과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기록
- 최근 발표한 1/4분기 경제 성장률도 시장 예상치(4.8%,yoy)를 크게 상회(5.3%)하였는데 특히, 하이테크 제조업의 산업생산이 경기 회복세를 주도
 - 산업생산은 전분기 6.0%에서 6.1%로 증가하였고, 소비의 경우 춘절 연휴(2/10~17일)로 인해 여행 및 외식 등의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개선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전분기 3.0%(yoy)에서 4.5%로 확대되었는데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가 11.4%를 기록
- 3월에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치(51.1)를 기록했으며, 국가 통계국 PMI도 생산과 수요 확대에 힘입어 확장 국면(50.8)에 진입¹⁾

■ 중국 주요 경제지표



자료 : CEIC

■ 중국 차이신 및 국가 통계국 PMI 지수 추이



자료 : CEIC

[1] 국가 통계국 PMI는 국유 대기업 중심으로 조사되는 반면 차이신 PMI는 민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까지 포함

■ 주요 IB들은 중국의 양호한 경제 흐름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상향

- 당초 중국 정부가 '24년 전인대에서 제시한 5%(yoy) 내외의 성장률 목표치의 경우 대내외 위험 요인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높게 설정되었다는 평가가 우세
 - 정책 당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은 시장 예상을 하회
- 그러나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IB들은 최근 중국 경제가 저점 통과 후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
 - 골드만삭스는 기존 전망치 4.8%에서 5.0%로 상향하였고, 모건스탠리도 미국의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제조업 투자 확대 등을 반영해 4.8%(+0.6%p)로 제시

■ 다만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 속 미진한 소비, 디플레이션 위험 등 불확실성 우려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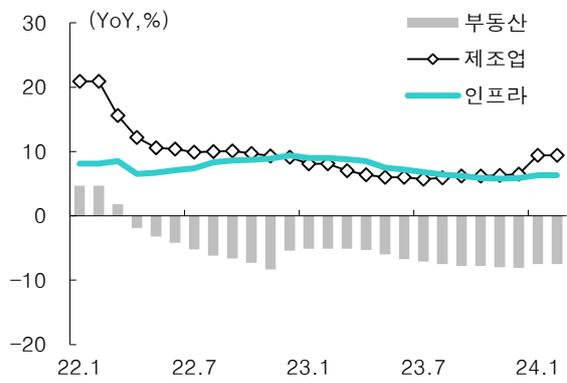
-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책 당국의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개별 부동산 업체들의 디폴트 위험도 상존
 - 주택가격과 판매량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투자 위축도 심화(3월 -7.9%,yoy)
 - '24년 1~2월 기준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가운데 국유 기업인 완커(Vanke)의 유동성 이슈까지 부각
- 고용 및 소득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부진으로 저물가 현상이 심화되는 등 여전히 소비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24년 3월 CPI 0.1%,yoy)
 - 소매판매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반면 가계 저축률은 높은 편
 - GDP 디플레이터는 4분기 연속 하락하며 1999년 이후 가장 긴 하락세 시현
- 디플레이션 장기화 시 가격 하락기대로 가계 소비를 지연시키고, 기업들의 수익감소 우려에 따른 신규 투자 및 생산 축소로 내수 수진을 심화시킬 가능성
 - 상품 가격 하락 → 가계 지출 감소 → 기업 생산활동 둔화 → 고용 위축의 악순환

■ 중국 소비자신뢰지수 및 고용심리지수



자료 : CEIC

■ 중국 고정자산투자 부문별 증가율 추이



자료 :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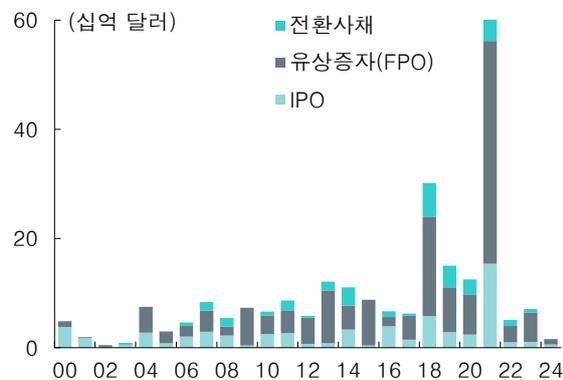
■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脫중국화 움직임도 경기둔화 압력을 가중시키는 부작용 초래

-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 노선 및 안보강화 기조가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정책 일관성 결여 등으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
 -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반간첩법을 개정한데 이어 국가기밀의 범위가 확대되는 국가기밀보호법이 개정
 -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23년 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4년 1/4분기에도 26%(yoy) 감소
- 중국 경제 및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본토 및 홍콩을 포함한 역외시장에서의 자본시장 조달액이 역대 최저치 기록²⁾
 - 올해 본토 증시에서의 조달액은 64억 달러로 동 기간(1월~4/9일) 대비 사상 최저치
 - 홍콩 등에서 조달한 자금도 '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해외 채권시장에서의 상황도 이와 유사('1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260억 달러)

■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을 대체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 제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미국의 고강도 기술 제재로 난항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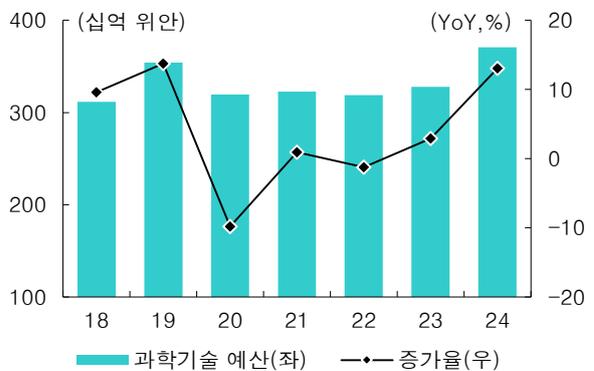
- 정부 당국은 첨단기술 발전 및 자립도 제고를 위한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신산업을 통해 부동산 부문을 대체할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의 일환
 - 올해에는 디지털 경제 혁신을 위해 AI 플러스(人工智能+) 정책을 처음으로 발표하였으며, 양자기술을 포함해 바이오 및 항공 등 미래 산업 육성 의지도 적극 표명
- 다만 중국의 기술자립 의지가 강화될수록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중국 견제도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 수출도 규제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AI 및 반도체 칩 개발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화웨이와 연계된 중국 반도체 칩 기업들을 블랙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중국 기업들의 해외 증시 조달 규모 추이



자료 : Dealogic, FT

■ 중국 과학기술 예산 추이



자료 : 중국 재정부, CEIC

[2] "China's capital markets activity falls to multi-decade lows", FT, 2024.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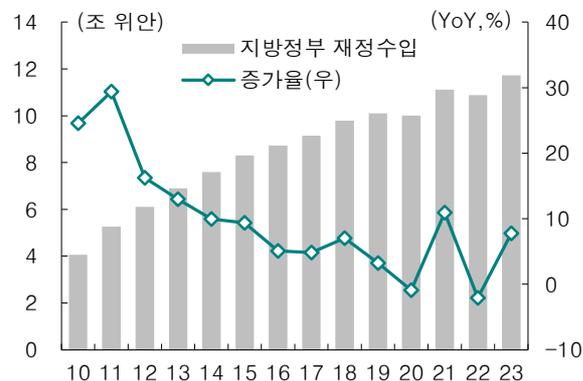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경기둔화와 함께 부채 위험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강등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지난 4/10일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
 - 특히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으로 부채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가 '23년 56.1%에서 '24년 61.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앞서 무디스(Moody's)도 신용등급을 강등하였는데 정부의 부동산발 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 부동산 침체에 따른 토지사용권 수입 급감으로 지방정부 재정수입 증가세가 둔화

■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성장과 구조개혁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노력을 강화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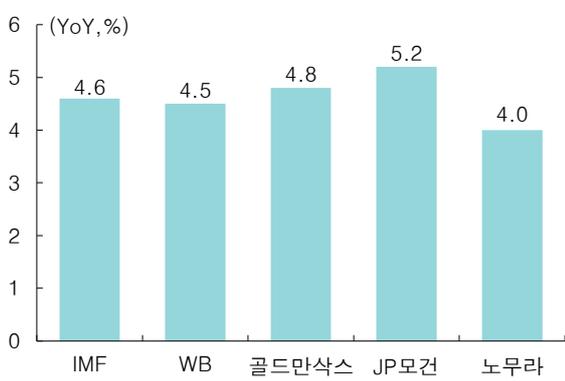
- 일각에서는 부동산 부문의 점진적인 회복과 정책 지원 강화 등을 이유로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제시하는 반면 다양한 불안 요인들로 경계하는 입장도 공존
- 중국 정부가 대내외 체질 개선 필요성으로 성장전략 전환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경기부양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
 - 그동안 양적 성장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부동산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양
 -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구조조정 과정에서 잡음이 불가피하며, 정부의 구조개혁과 성장 사이에서의 딜레마도 지속
- 더욱이 내수회복 기반이 여전히 견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질적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발전 전략도 글로벌 견제 심화 속 제약될 소지
 - 최근에는 첨단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와 생산 확대에 따른 글로벌 과잉 리스크 우려가 지적되면서 통상 마찰로 확산될 가능성 존재 

■ 중국 지방정부 재정수입 추이



자료 : CEIC

■ 주요 기관들의 '24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



자료 : IMF, WB, Bloomberg

글로벌 금융사의 AI 도입 성과 본격화

신석영 수석연구원

NVIDIA(2024)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사는 개념 증명(PoC: Proof-of Concept) 같은 초기 단계의 AI 도입을 넘어서 업무 자동화, 자금세탁방지(AML) 등 내부 핵심 업무에 AI를 적극 활용하며 비용 절감, 이윤 창출 같은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내외 금융사의 AI 도입과 성과 제고 움직임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안 등 데이터 이슈 대응, 인력 확보, 온프레미스(On-Premise) 같은 금융 적합 IT 인프라가 확대될 전망이다.

■ 글로벌 금융사는 단순한 AI 실험을 넘어서 비용 절감 등 AI 도입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¹⁾

- 글로벌 금융사는 AI를 업무 자동화, 리스크 관리 등 내부 핵심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 절감, 수익 창출 같은 실질적 효과를 창출
 -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사 중 80% 이상이 단순 AI 접목을 넘어서 AI 도입을 통한 실질적인 수익(Revenue) 창출과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고 밝힘
 - Morgan Stanley, citi 등 글로벌 금융사는 업무 자동화, 자금세탁방지(AML)를 비롯한 리스크 분야, 마케팅 및 판촉 영역에서의 AI 도입 효과를 확대 중
- 또한 글로벌 금융사는 생성형 AI, 대규모언어모형(LLMs) 같은 관련 신기술 역시 신속히 업무에 도입하며 보고서 자동 생성, 초개인화 서비스 개발에 활용 중
 - 설문조사에 참여한 글로벌 금융사 중 약 45%가 대규모언어모형(LLMs) 및 생성형 AI(Generative AI)를 도입하여 업무 자동화 등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언급

■ 글로벌 금융사는 AI 도입 성과 제고를 위해 데이터 이슈 대응, 인력 확보를 강조

- 글로벌 금융사는 AI 도입의 성과 확대를 위해 정보보안 등 ‘데이터 이슈 대응’, ‘AI 전문가 및 예산 확보’, ‘대규모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
 - AI 도입 선결 과제(응답) : 데이터 이슈(38%), 인력 확보(32%), 데이터 확보(28%)
- 특히 최근 들어 금융사의 AI 운용 및 사업화가 궤도에 오르면서 금융사 내부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데이터 이슈)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는 상황
 - 전년도 조사(2023)에서는 AI 전문가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나, 2024년 조사에서는 정보보안 등 데이터 이슈가 전문가 확보를 넘어서는 최우선 과제로 부상

[1] “State of AI in Financial Services : 2024 Trends”, NVIDIA, 202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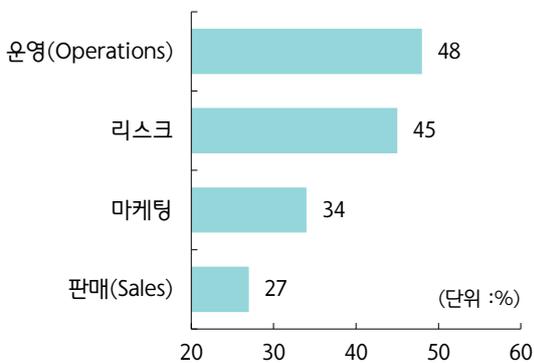
■ 국내외 금융사는 데이터 이슈 대응을 위해 내부 규율과 IT 융합 인프라를 강화 중

- 글로벌 금융사는 정보보안 등 AI 데이터 이슈 대응을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 강화, 클라우드(Cloud)와 온프레미스(On-Premise) 결합 등 관련 IT 인프라를 확대
 - 약 84%의 글로벌 금융사가 정보보안 대응을 위해 내부 규율 및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연계 등 인프라를 확대 중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한 수치
 - 온프레미스는 클라우드와 달리 기업 내부망에 바탕을 두는 인프라 개념이며 정보보안 등 데이터 이슈가 중요한 금융업에서 최근 관심이 부상하고 있음
- 정보보안에 민감한 국내 금융기업 및 공공 기관 역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연계하는 등 AI 융합 인프라를 기반으로 ‘본업 특화 AI 서비스 구축’에 집중
 - 한수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공공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와의 협력을 통해 온프레미스(내부망)와 클라우드(외부망)가 결합된 AI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개발 중

■ 금융권 AI 도입에 있어 유관 인프라 확대와 실질적 성과 창출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 생성형 AI 등 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대중적 AI 관심 확대로 금융권의 AI 도입과 성과 제고 움직임은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
 - NVIDIA의 설문(2024)에 따르면 약 51%의 글로벌 금융사는 향후 AI 중요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76% 가량 증가한 수치
- 특히 국내 금융사 역시 초기 단계의 AI 적용을 넘어서 AI 도입의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고, 이를 위한 내외부 인프라 연계와 리소스 관리가 부상할 전망
 - 4대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조직 신설, 초기 검토(PoC) 등 AI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AI 활용 영역과 실질적 성과 창출 사례가 본격화될 전망
 - 최근 금융위원회는(‘24.04)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완화를 선언하였으며, 이로 인해 금융사의 내부 AI 인프라와 외부 인프라 연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 [👉](#)

■ 글로벌 금융사의 AI 도입 주요 분야 (2024 설문조사)



자료 : NVIDIA, 2024

■ 글로벌 금융사의 AI 도입 사례 및 효과

금융사	사례	도입 효과
Morgan Stanley	자체적인 AI 투자 솔루션을 도입, 주식 변동성 예측과 거래 자동화 업무에 사용	운영 상품 수익률 개선 (16%)
citi	AI 기반 업무 자동 프로세스 APD (Automated Process Discovery) 를 도입, 리포팅, 신용평가 등의 업무에 활용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 개선 (30%~)
Goldman Sachs	AI 리포팅 시스템 도입으로 도드-프랭크 법과 같은 금융 규제를 자동 반영하는 금융 계약서 생성	리포팅 자동화 및 규제 대응

자료 : Dashdev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디지털 월렛 시대, 은행의 차별성

장혜원 수석연구원

디지털 월렛은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경쟁 속에 대체 결제 플랫폼의 하나로 급성장 중이다. 디지털 월렛의 뜨거운 경쟁 속에 세대별 선호 브랜드는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제 옵션의 진화에 따른 편의성 증진에도 불구하고 banking 앱을 통한 결제 및 자산관리 수요와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은행은 본연의 강점을 기반으로 디지털 월렛의 성장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된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등장한 디지털 월렛은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다양한 제공자의 경쟁적인 참여 속에 대체 결제 플랫폼의 하나로 급성장 중

- ‘The Global payments Report 2024’^[1]에 따르면,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디지털 월렛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2027년 결제 비중의 과반을 차지할 전망
 - 2027년 디지털 월렛 결제 비중 전망: 전자상거래(온라인) 61%, POS(오프라인) 47%
- 디지털 월렛의 주요 성장 요인은 핀테크, 빅테크, 은행, 모바일 제조업체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에 따른 소비자 편의성 증진
- 한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증대된 가운데 이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역시 디지털 월렛 친화적인 방법으로 구축되는 경향
 - 최근 90일 이내 디지털 월렛 사용경험: X세대 44%→M세대 61%→Z세대 66%

■ 디지털 월렛의 뜨거운 경쟁 속에 세대별 선호 브랜드는 각각 다른 것으로 조사

- 디지털 월렛 사용경험이 가장 높은 Z세대는 Apple Pay를 선호(45%)했으며, M세대는 Google Pay(47%), X세대는 PayPal 월렛(26%) 사용률이 가장 높음
- 베이비붐 세대 역시 X세대와 같은 PayPal 월렛(21%)을 선택한 가운데, 프리붐 세대(pre-boomer)라 불리는 고연령층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 해당 선호에서 X 이전 세대가 기존 지불결제 수단에 대한 경로의존성을 보인 반면, MZ세대는 최대 포털사이트와 스마트폰 브랜드의 영향이 큰 특징

[1] “Consumers Have Embraced Digital Wallets. But They Also Want Them to Be Better”, The Financial Brand, 2024.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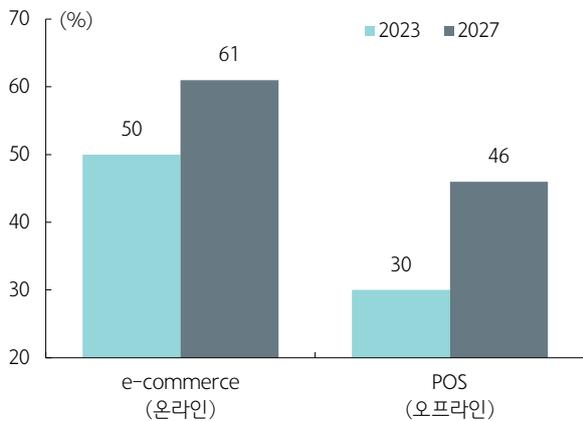
■ 결제 옵션의 진화에 따른 편의성 증진에도 불구하고 banking 앱을 통한 결제 및 자산 관리와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 니즈 증가

- Apple Pay, Google Wallet과 같은 거대 빅테크의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편의성이 증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banking 앱을 통한 결제 관리 수요 증가
 - 17개 글로벌 대형은행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anking 앱을 통한 결제 관리 기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소비자는 편리함을 넘어 반복결제 설정, 계좌잔고 부족 경고알림, 상품 추천 등 복잡·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대체하고 싶은 니즈를 갖고 있음
- 대체 결제 수단들이 주로 소비에 초점을 둔 반면, 은행은 자산형성 및 관리 측면에서 상품 제안과 연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

■ 은행은 결제 및 자산관리의 장점을 기반으로 디지털 월렛의 성장성을 활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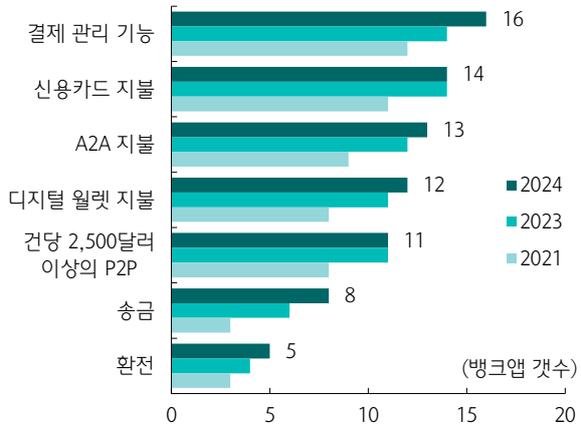
- 국내 주요 은행의 디지털 월렛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들은 본연의 장점을 기반으로 연결성, 새로운 서비스 런칭 등을 주요 차별 포인트로 부각
 - 하나은행(원큐지갑): 보이스피싱 등 이상거래 탐지, 국민은행(국민지갑):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 신한은행(쏠지갑) 및 우리은행(원더월렛): NFT월렛 서비스 등
- 디지털 월렛의 성장성 활용전략 수립에 있어 은행들은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외에도 세대별 브랜드 선호를 고려한 제휴 등도 고려해 볼 필요
 - 세분화된 고객의 디지털 라이프 특징과 같은 핵심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 

■ 결제 시장에서 디지털 월렛 비중 전망



자료 : Worldpay Global Payment Report 2024

■ 소비자가 생각하는 은행앱의 주요 기능



주 : 소비자가 banking 앱 선택시 고려하는 주요 기능(17개 대형은행 대상)
 자료 : Financial Brand(2024)

[2] "Major Banks' Mobile Apps Evolve into 'Payment Central' for Consumers", The Financial Brand, 2024.4.11

금리: 내수 중심 GDP서프라이즈로 상방 압력 확대

김 용 태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1분기 美 GDP성장률 예상치 하회로 경기 모멘텀은 둔화되었으나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물가지표의 예상치 상회로 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약화되며 상승했다. 국내 금리도 韓 1분기 GDP성장률이 내수 개선을 바탕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해 경기 모멘텀이 개선되며 상승했다. 정책 기대가 충분히 낮아진만큼 대외금리의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나, 국내 금리는 내수 중심 성장을 개선에 따라 대외금리격차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상방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 글로벌 금리는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 지속으로 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약화되며 상승

-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우려가 커지고 美 소매판매(전월비 0.7%)가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
 - 파월의장은 “1분기의 강한 물가지표는 인플레이션 진전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발언
- 4월 美 제조업/서비스업PMI와 1분기 GDP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해 美 경기 모멘텀은 둔화됐으나 근원PCE가격지수상승률 예상치 상회로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가 확대
 - 美 제조업/서비스업PMI(pt) : 3월 51.9/51.7 → 4월 49.9/50.9(예상 52.0/52.0)
 - 美 GDP/근원PCE가격지수(QoQ연율화, %) : 4Q 3.4/2.0→24.1Q 1.6/3.7(예상 2.5/3.4)
- 글로벌 금리는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로 통화정책 전환 기대 후퇴하며 상승
 - 미국채 2/10년물 금리(%) : 4.12일 4.91/4.59 → 19일 5.00/4.63 → 25일 5.01/4.71

■ 국내 금리는 美 통화정책 기대 후퇴 속 韓 1Q GDP가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되며 상승

- 국내 24.1Q GDP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개선으로 내수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가능성이 확대
 - 한은은 상반기 경제성장률 2.2%(YoY)를 전망했으나 1Q 성장률 3.4%를 기록
- 4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이 상승세(11.1%, YoY)를 이어간 가운데 기업경기실사지수/경제심리지수(3월 69/92.2→4월 71/94.5)도 개선되며 경기 확장 흐름이 지속
- 韓 금리는 대외發 금리 상승 압력과 내수 개선에 따른 GDP성장률 호조로 상승
 - 국고 3/10년 금리(%) : 4.12일 3.40/3.54 → 19일 3.47/3.58 → 26일 오전 3.58/3.73

■ 韓 24.1Q GDP성장률, 수출 확대와 기저효과에 따른 내수 반등으로 시장 전망치 상회

- 24년 1분기 한국 실질GDP가 수출 호황이 지속된 가운데 '23년 내내 부진했던 내수 지표가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반등하면서 시장 예상치(전기비 0.6%)를 상회
 - GDP성장률(전기비/전년비, %): 23.3Q 0.6/1.4→23.4Q 0.6/2.2→24.1Q 1.3/3.4
 - 성장률 기여도(내수/순수출, %P): 23.3Q 0.2/0.5→23.4Q -0.4/1.0→24.1Q 0.7/0.6
-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4.1분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인만큼, 해당 성장세가 2~4분기 성장 경로에도 반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반기까지 양호한 흐름을 예상
- 그간 美 국채금리 상승에도 ‘내수 부진 및 수요 둔화에 따른 근원물가 둔화세 지속’이라는 국내 여건이 대내 금리 상승을 제한해왔기에 금번 GDP 발표로 내수 평가 및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될 시 시장 금리 상방 압력이 높아질 전망
 - 또한, 금통위에서 총재는 대내 환경에 입각한 독립적 통화정책 여력이 높아졌다 발언했으나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시 조기 금리인하(연준 대비)의 가능성도 후퇴

■ 내수 개선으로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되면서 높아진 대외금리격차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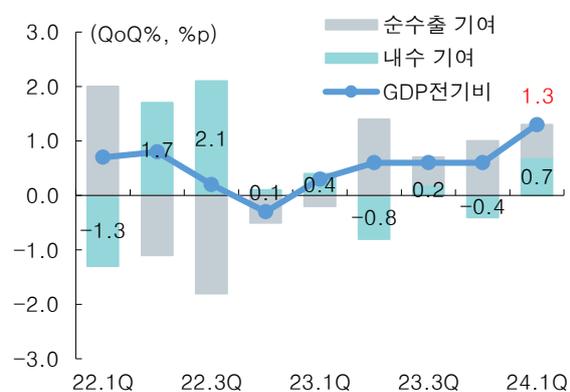
- 글로벌 공급망 개선 효과 둔화 속 수요 측 상승압력이 견조하게 지속되며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예상을 연이어 상회해 시장 금리인하 기대(1회vs점도표 3회)는 크게 축소
- 정책 기대가 크게 낮아진만큼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나, 최근의 상승이 주로 펀더멘털 측면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2분기 美 재무부 국채발행계획이 비우호적일 경우 기간프리미엄이 추가 확대되며 금리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에 유의
- 국내 금리는 ‘부진한 국내 경기 환경’과 ‘우호적 수급 여건’으로 대외금리와의 격차가 확대됐으나 내수 중심 성장률 개선 확인되며 장기물 중심으로 상방압력 높아질 전망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50%~3.70%, 3.65%~3.85% 범위로 전망 

■ 韓美 장기금리 추이 및 격차



자료 : 인포맥스

■ 한국 1분기 성장률 및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외환: 리스크 오프 모드로 불안한 원화

오 현 희 연구위원

지난 2주간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금리인하 기대가 더욱 후퇴한 가운데 중동 분쟁이 격화되고 엔화와 위안화 약세가 맞물리자 큰 폭으로 상승하며 장중 1,400원을 상회하였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누그러지고 통화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 등이 부각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하여 1,370원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원/달러 환율은 중동발 리스크가 잔존한 가운데 5월 FOMC를 앞두고 여전히 물가 경계감이 높은 상황에서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중동 분쟁 심화 속 주요 아시아 통화 약세의 영향 등으로 급등

- 원/달러 환율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과 美 경제지표 호조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분쟁 확산 우려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큰 폭으로 상승
 - 아울러 아시아 통화 약세까지 가세하자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0원 상향돌파
- 하지만 중동 확산이 제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점을 통과하였다는 기대 속 한·일 재무장관 공동 구두개입, 한·미·일 정책 공조 등으로 하락
 - 4.17일 3국 재무장관은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해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 [국제 환율] 연준 금리인하 기대 후퇴에 따른 달러화 강세 속 엔화 약세 심화

- 달러화는 美 소매판매 지표 호조로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으로 국제 금리 급등에 연동되며 상승
 - 다만, 4.25일 발표된 '24년 1분기 미국의 GDP성장률이 전기대비 연율 1.6%로 시장 예상치인 2.4%를 크게 하회하자 美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며 반락
- 유로화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ECB 총재의 통화긴축 완화 시사 발언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4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PMI가 높아지는 등 경기회복 기대감에 상승세
- 엔화는 日 외환당국의 잇따른 구두개입에도 불구하고 美 조기 금리인하 기대 후퇴 등으로 미·일간 금리격차가 부각되며 달러당 156엔 돌파(34년만에 최고치)
- 위안화는 1/4분기 예상을 상회한 中 GDP성장률(5.3%)이 발표되자 일시적으로 강세 전환하기도 하였으나, 미·중 긴장 우려와 강달러의 영향 등으로 약세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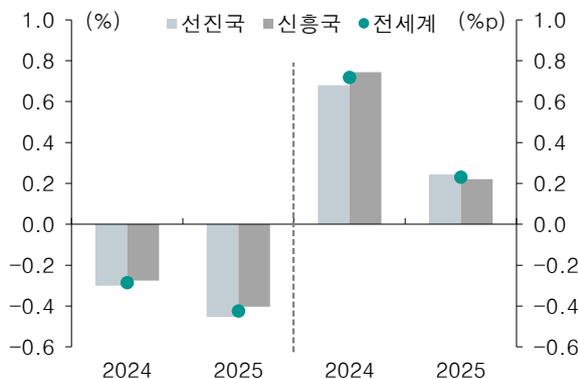
■ 중동發 지정학적 리스크는 안전자산 선호와 유가 상승 경로 등을 통해 원화에 영향

-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 우려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자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달러화 강세압력이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 확대
-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맞물리며 유가 상승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물가 우려 재점화시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더욱 지연되면서 달러화 강세 심화될 전망
 - 특히,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전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33% 통과)마저 위협할 경우에는 국제유가 급등 불가피
- 더욱이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으로 전환된 2019년 이후로 국제유가 상승이 美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어 원화를 비롯한 달러外 통화의 약세 압력 가중
 - 우리나라와 같은 원유 순수입국의 경우 유가가 상승하면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경상수지 축소, 경제성장 약화 등의 경로를 통해서도 통화의 약세 압력 가중
 - IMF는 중동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15% 상승하고, 컨테이너 운임이 150% 상승할 경우 2024년 중 글로벌 GDP는 0.3% 감소, 물가는 0.7%p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원/달러 환율은 5월 FOMC를 앞두고 물가 경계감 이어지며 불안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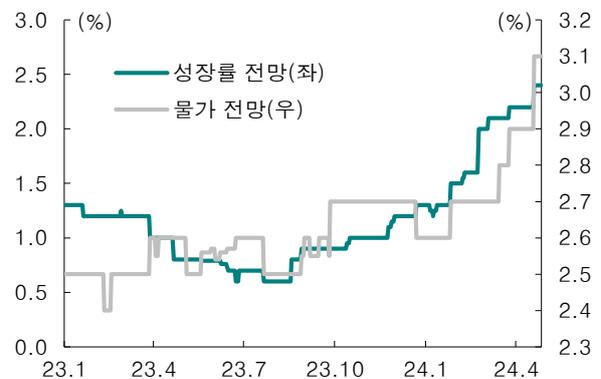
- 중동 분쟁이 전면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강화 등 불안은 남아있어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가 지속될 전망
- 또한, 연준이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1/4분기 美 PCE 가격지수가 3.4%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점도 달러 강세 요인
- 아울러 BOJ가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국채 매입 규모도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엔화 약세가 심화된 점도 원화 불안요인
 - 향후 2주간 원/달러 환율은 FOMC를 주시하며 1,360~1,420원에서 움직일 전망 

■ 중동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GDP 및 물가 영향



주: GDP는 기준선 대비 % 변동, 물가는 기준선 대비 %p 변동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4.4

■ 시점별 미국의 2024년 성장률과 물가 전망



주: 투자은행 전망치 중간 값
 자료: Bloomberg

부동산: 매수세 회복에 가격 부담이 걸림돌

하 서 진 수석연구원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핵심지역 중심으로 상승하며 전월 대비 낙폭이 축소되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매수세는 안전자산 인식이 높은 수도권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금조달 부담과 매도자와 매수자 간 호가 차이로 매매 거래량이 급증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부동산 PF의 선별적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시장 회복이 지연될 경우 지방 주택, 비주택 사업장은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 수도권 핵심지역 상승세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폭 축소

- 급매 중심으로 거래되며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한 반면 수도권 핵심지역은 상승하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폭 축소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 MoM) : -0.14('24.1월) → -0.14(2월) → -0.12(3월)
- 아파트와 연립은 하락폭이 소폭 축소되고 단독주택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모든 주택 유형에서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
 - 유형별 상승률(% , MoM, 2월/3월) : 아파트 -0.21/-0.18, 연립 -0.09/-0.07, 단독 0.07/0.07
- 대구, 경남 등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전세가격이 하락했으나 전반적으로 전세수요가 늘면서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세 유지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 MoM) : 0.05('24.1월) → 0.03(2월) → 0.05(3월)

■ 매수세는 안전자산 인식이 높은 수도권 아파트 등으로 집중될 가능성

- 한미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매수세는 기준금리 인하 이전까지 관망세를 유지하거나 수도권 아파트 등 안전자산으로 집중
 - 추가 규제 완화 또한 단기간 내 추진되기 어려워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될 전망
- '24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서울은 크게 감소, 공급 부족 우려가 심화되며 선매입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
 - 아파트 입주물량(만호, 전국/서울) : 33.3/2.4('22) → 36.2/3.3('23) → 34.1/1.2('24)
-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지방 미분양 매입 시 세제혜택 부여 등의 규제 완화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 지방 투자수요 회복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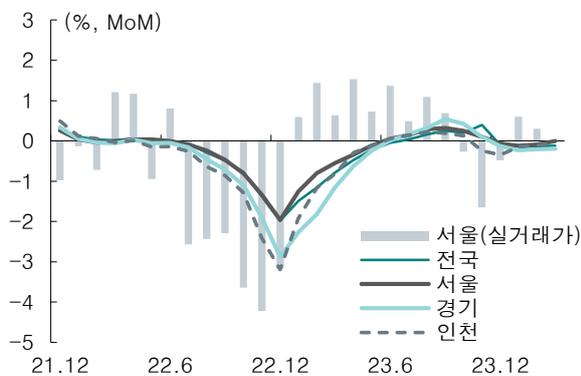
■ 자금조달 부담, 매도자와 매수자 간 호가 격차 등으로 매매 거래량 급증은 한계

- 고분양가로 입주에 필요한 자금이 늘어난 반면 매매 거래 침체로 기존 주택의 매각이 지연되면서 수분양자의 아파트 입주율은 전국적으로 하락
 - 아파트 입주율(% , 전국/수도권/지방) : 72/83.1/69.7('24.2월) → 68.4/80.6/65.8(3월)
 - 수분양자 미입주 사유(3월, 비중) : 기존 주택매각지연(36.4%), 잔금대출 미확보(21.8%)
- 기존 주택시장에서는 매도자가 가격 회복 기대감으로 높은 호가를 유지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간 호가 격차가 지속
- 매수자 관망세 등으로 매매거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며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 전세가격전망지수(2024.3월, KB) : 수도권 106.5, 서울 110.8, 5대광역시 94
 - ※ 전세가격전망지수 :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비중 높음

■ 한편, 부동산 PF 시장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별적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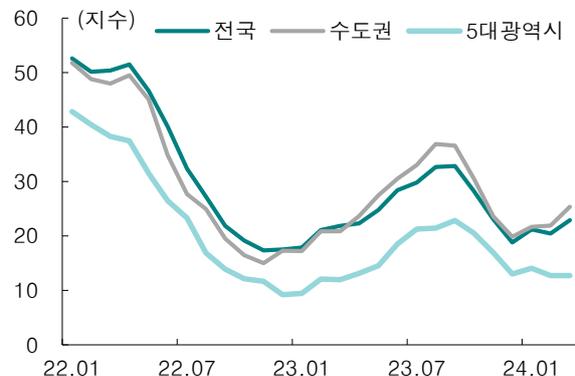
- 금융당국은 브릿지론 차환 리스크와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 손실흡수능력 확대, 부실사업장 매각 촉진 등을 통해 부동산 PF 정상화에 주력
 - 사업장별 총당금 선제적 적립,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개정으로 사업 재구조화 촉구
- 공공기관의 부실사업장 매입, HUG, HF,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확대, 민간 금융기관의 사업장 인수 등이 추진되면서 부실 사업장의 선별적 구조조정 본격화 예상
- 다만, 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연될 경우 수요 기반이 약한 지방 주택 및 비주택 사업장은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어 향후 시장 추이를 주시할 필요 **9**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종합주택 매매가격, 공동주택 실거래가)

■ 매수우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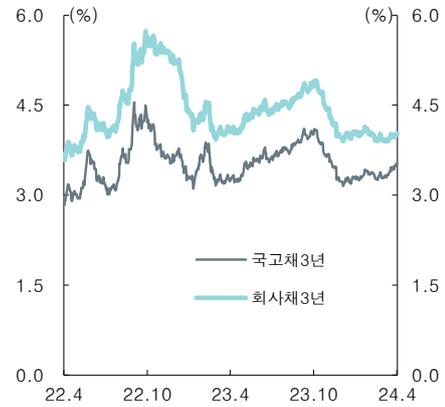


주 : 0~200 범위 이내이며 100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음
 자료 : KB부동산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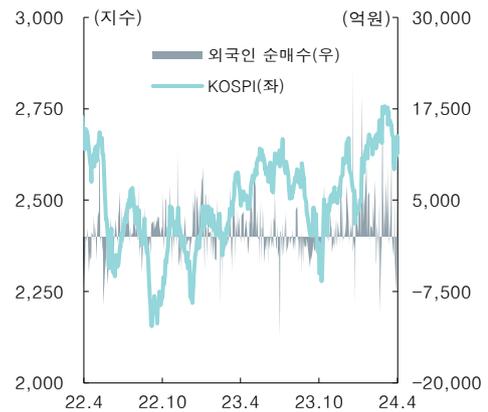
●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3월말	3.57	3.64	3.57	3.93	3.32	3.35
4월 19일	3.51	3.55	3.57	3.98	3.47	3.54
4월 22일	3.53	3.56	3.61	4.02	3.51	3.59
4월 23일	3.53	3.56	3.60	3.99	3.49	3.56
4월 24일	3.52	3.56	3.62	4.00	3.51	3.58
4월 25일	3.56	3.57	3.63	4.03	3.54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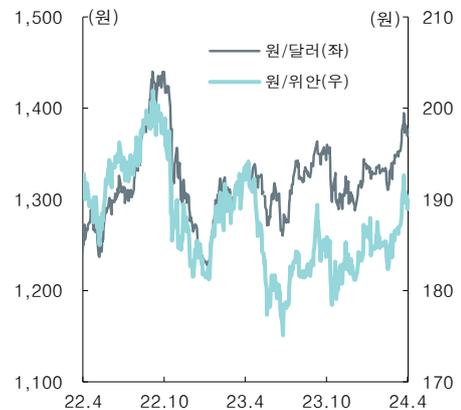
●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3월말	2,746.6	111,901	495	7,823
4월 19일	2,591.9	140,448	809	-3,489
4월 22일	2,629.4	110,211	402	-7,504
4월 23일	2,623.0	99,483	430	-253
4월 24일	2,675.8	102,277	326	4,924
4월 25일	2,628.6	89,880	334	-2,892



●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3월말	1,347.2	889.9	186.5	1,454.0
4월 19일	1,382.2	893.7	190.9	1,472.4
4월 22일	1,379.2	890.7	190.4	1,469.4
4월 23일	1,378.3	890.1	190.2	1,474.8
4월 24일	1,369.2	881.3	188.9	1,464.8
4월 25일	1,375.0	883.3	189.9	1,475.2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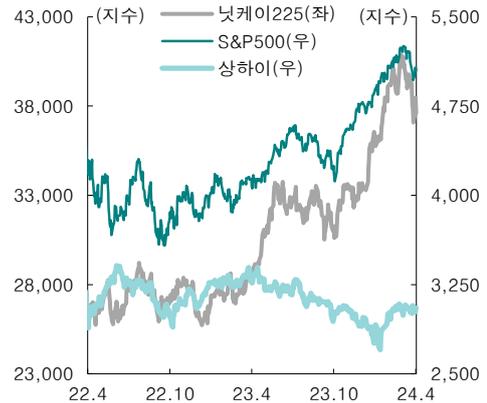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2년말	4.33	4.59	4.43	3.87	0.42	2.57
'23년말	5.33	5.33	4.25	3.88	0.61	2.02
3월말	5.33	5.30	4.62	4.20	0.73	2.30
4월 19일	5.33	5.33	4.99	4.62	0.85	2.50
4월 22일	5.33	5.32	4.97	4.61	0.89	2.49
4월 23일	5.33	5.32	4.93	4.60	0.89	2.50
4월 24일	5.33	5.32	4.93	4.64	0.91	2.59
4월 25일	-	5.32	5.00	4.70	0.90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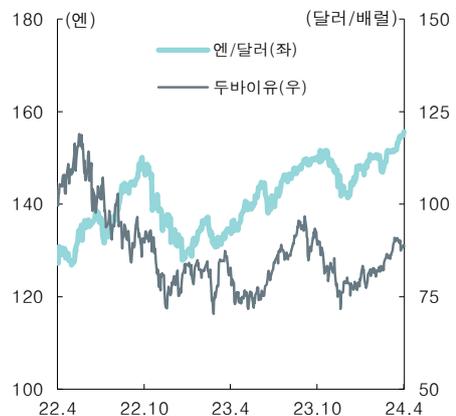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2년말	3,839.5	26,094.5	3,089.3	3,793.6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3월말	5,254.4	40,369.4	3,041.2	5,083.4
4월 19일	4,967.2	37,068.4	3,065.3	4,918.1
4월 22일	5,010.6	37,438.6	3,044.6	4,936.9
4월 23일	5,070.6	37,552.2	3,022.0	5,008.2
4월 24일	5,071.6	38,460.1	3,044.8	4,989.9
4월 25일	5,048.4	37,628.5	3,052.9	4,939.0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3월말	151.31	1.079	86.3	2,238.4
4월 19일	154.57	1.065	87.7	2,413.8
4월 22일	154.84	1.065	86.4	2,346.4
4월 23일	154.83	1.070	88.5	2,342.1
4월 24일	155.34	1.070	88.9	2,338.4
4월 25일	155.64	1.073	88.6	2,342.5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9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4년 4월 26일 인쇄

2024년 4월 29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형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9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